



즉시 배포용: 2017년 3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개혁조치가 패혈증 사망률의 일관된 하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발표**

**획기적인 'Rory's Regulations'가 패혈증 확인 및 예방을 위한 국가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향상된 병원의 규정 준수와 사망률 감소 사이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획기적인 Rory's Regulations의 결과로서 뉴욕이 패혈증 사망률의 일관된 감소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에 고인이 된 Rory Staunton의 이름을 따라 명명하고, Cuomo 주지사가 처음으로 옹호한 이 법령은 병원들이 패혈증의 확인 및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프로토콜을 확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패혈증과의 싸움을 선도해왔으며, 이 새로운 수치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노력은 생명을 구하고, 이 치명적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Rory를 기리며, 이 싸움을 진행하고 옹호한 점에 대해 Ciaran 및 Orlaith Staunton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국내의 다른 주들도 패혈증 감염과 싸우고, 궁극적으로 이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모델로서 Rory's Regulations를 이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성공을 인식하기를 희망합니다.”

패혈증은 혈액이나 연조직에 들어온 감염 이후의 전신 염증에 의해 신체의 기관과 계통이 서서히 정지하는 것입니다. 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사지 절단 또는 기관 기능장애 같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경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와 결합된 조기 발견이 생존의 기회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4년 및 2016년의 분기 데이터를 비교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연구 당시의 10,970명에서 연구 종료 시에 13,126명으로 패혈증 환자 확인 건수가 2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간에, 성인 사망률은 30.2%에서 25.4%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2013 년에 Rory's Regulations 를 채택했으며, 패혈증과 선제적으로 싸울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 뒤따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국내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학교 체육관에서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은 후 패혈증에 감염되어 2012 년 4 월에 사망한 퀸즈 출신의 12 세 소년인 Rory Staunton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의 부모 Ciaran 및 Orlaith Staunton 은 뉴욕의 병원들에서 패혈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싸움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Ciaran 및 Orlaith Staunt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ry 는 매일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 있으며, 그를 기리면서, 패혈증과의 싸움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한 모델을 갖게 되었으며, 이 연구는 그것이 효과적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국내의 다른 주들도 Rory's Regulations 에 따라 이루어진 진전을 주목하고, 뉴욕주가 달성한 모범 사례를 따르며, 더 이상 무의미하게 생명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러한 종류의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합니다.”

Rory's Regulations 하에서, 병원들은 패혈증, 중증 패혈증, 패혈성 쇼크가 있는 사람을 초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를 검진하는 프로토콜을 시행함은 물론이고, 항생제 조기 투여 등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해야 합니다. 주 보건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패혈증 확인율 상승을 통해서 법령을 준수하는 병원들은 보다 일찍,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토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식 프로토콜을 받은 패혈증 환자의 전체적 비율이 성인의 경우 73.7%에서 84.7%로, 아동의 경우 80.6%에서 85.3%로 증가했습니다.
- 한 시간 내에 권장되는 모든 초기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은 아동 환자의 비율이 4.9%에서 17.6%로 3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3 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패혈증 치료를 받는 성인의 비율이 2014 년의 41.5%에서 2016 년에는 55.2%로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 6 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패혈증 치료를 받는 성인의 비율도 22.6%에서 36.4%로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패혈증 인식 및 옹호 활동에 대한 Staunton 의 확고한 전념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함에 있어서, 뉴욕의 병원들에서 현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패혈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GNYHA) 회장 Kenneth E. Rask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망한 보고서는 중증 패혈증이나 패혈성 쇼크가 있는 환자의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뉴욕 병원들의 깊이 있는 전념을 반영합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패혈증의 조기 확인 및 치료를 위해서 프로토콜을 채택한 최초의 주가 된 뉴욕주의 리더십과 비전을 반영합니다. GNYHA 는 병원들이 이러한 개선사항을 유지하고 확립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의 회원 병원들 및 뉴욕주 보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Healthcare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HANYS) 회장 Bea Grause(공인 간호사 및 법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ANYS 는 이 획기적인 계획에서 보여준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 Staunton 일가, Cuomo 주지사, Zucker 커미셔너 및 뉴욕주 보건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HANYS 는 우리 회원들의 진전에 대해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병원들은 패혈증 대처 방법에 관한 지식 체계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향상된 치료, 그리고 모든 환자들을 위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ANYS 는 뉴욕주 패혈증 자문위원회, HANYS 의 주 전역에 걸친 패혈증 지원 네트워크, 그리고 New York State Partnership for Patients Initiative 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후, 보건부는 이제 병원들의 법령에 대한 규정 준수율을 높이는 것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이었던 구체적 임상 실무 및 치료 시스템을 더욱 살펴보기 위해서 패혈증 자문 그룹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위험 환자의 조기 확인 및 초기 개입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혁신적 접근방식을 확인하는 것부터 새로운 인력에 대한 패혈증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매년 750,000 명 이상의 미국인이 패혈증에 걸리며 200,000 명 이상이 그것으로 죽어서 패혈증은 병원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고 전국적으로는 11 번째의 사망 원인으로서는 매년 에이즈, 전립선암, 유방암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유병률과 결과를 감안할 때, 패혈증은 엄청난 의료비의 주범으로서 국내 의료 경비에서 연간 170 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